

‘열린 마음’ 이 언어적 한계 극복 열쇠

글 | 김동환 _ 고려대학교 재료공학부 교수 donghwan@korea.ac.kr

열마 전 기술표준원 윤종구 박사에게 기술 표준의 중요성에 대한 특강을 부탁했다. 국제 표준을 어떻게 정하는가에 따라 각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걸려 있으니 나라마다 전문가 양성을 위해 투자를 열심히 하고 있고 한국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다.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각국을 대표해서 국제표준회의에 나서는 전문가도 여러 계급이 있고 각자 맡은 역할도 다르지만 그들이 갖춰야 할 기본 요건에 공통점이 있다는 점이다. 거기에는 당연히 영어구사 능력이 들어간다.

국내에 영어 잘하는 전문가는 ‘사실상’ 없다(?)

윤 박사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질문했다. 한국이 온통 영어교육 열풍에 휩싸여 있으니 국제회의에 나서서 회의를 주도할 만큼 영어를 잘하는 전문가가 당연히 많이 있을 것으로 짐작되지 않느냐고 말이다. 그러나 답은 불행히도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전문성을 갖춘 사람 중에서 영어를 충분히 잘 하는 사람을 찾기 어렵다고 했다. 산업의 분야가 다양하다보니 각 기술별로 국제표준회의에 참석해서 한국의 국익을 대변해 줄 사람이 필요한데 그럴 정도로 영어 구사능력을 갖춘 사람이 ‘사실상 없다’고 봐도 된다는 것이다. 다소 충격적이었다.

반기문 UN 사무총장이 영어로 연설하는 장면을 보면서 마음이 뿌듯했던 기억이 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국제회의에서 우리의 입장을 피력하고 이해관계가 다른 국가간에 타협을 이끌어 낼 정도의 영어 실력을 갖춘 사람을 찾는 것이 아직도 어렵다는 게 이상하게 느껴졌다. 전문가들 중 상당수는 외국에서 공부를 한 사람들이 아닌가 말이다.

유학시절 들었던 얘기다. 한국을 떠나 비행기를 열 시간 넘게 타고 막 학교에 도착한 한국 유학생이 길을 물으려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마침 좀 떨어진 곳에서 한국인처럼 보이는 학생이 자전거를 타고 자기쪽으로 오고 있었다. 가까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그래도 혹시 몰라 영어로 질문한다는 것이 “Do you Korean?”이라는 엉터리 영어를 하게 되었다. 그러자 자전거를 타고 무심히 지나던 사람이 깜짝 놀라고개를 돌려 대답한다는 게 “Yes, I do”였단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사람들마다 영어가 서툴러 겪은 얘기를 하자면 다들 할 말이 많을 것으로 짐작된다.

유학시절에 영어를 접한다고 해도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영어를 잘 하기가 어렵다. 한 두 학기가 지나면 이제 영어를 알아듣는 데 지장이 없고 자신의 전문 분야에 대한 지식이 쌓이고 전문용어에 익숙해지면 어느 정도 토론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속된 표현을 빌면 먹고 사는 데 영어 때문에 지장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러나 귀국을 하면 어휘력이 현저히 떨어져서 전문분야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의사소통하는 데 애를 먹는 수준이 된다.

그렇다면 사실 영어가 문제일까.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본다. 외국 생활을 해서 영어 듣기에 익숙해지면 금방 느끼게 되는 점이라고 보는데 사실 중요한 것은 영어 구사력이 아닐 수도 있다. 말하다가 보면 머릿속에 생각이 정리되어 있지 않거나 또는 별로 할 말이 떠오르지 않아서 그렇지 영어 때문에 말이 안 나오는 게 아니라는 느낌이 종종 든다. 그런 내용은 한국말로 표현하라고 해도 잘못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 일단 한국말로 생각을 정리해서 논리적으로 말을 하는 훈련이 더욱 중요할 것으로 짐작된다. 어차피 생각은 언어로 하는 것이고, 그 중

에서도 특히 생각할 때는 모국어로 한다는 이론이 있다. 우리가 외국어를 사용할 때도 생각은 모국어로 하는지 확신이 없지만, 분명한 것은 모국어로 머릿속에 정리된 개념이나 생각은 외국어로도 표현을 쉽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할 말이 있는데 외국어가 좀 부족하면 보디랭귀지를 쓰면 된다.

다문화 이해하는 친화력이 영어구사력 보다 우선

각국 대표가 모이는 국제회의에 가면 영어가 사실 큰 문제이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다는 점을 알게 된다. 말 그대로 각국에서 적게는 한 명, 많게는 서너 명 씩 파견되어 회의를 하니 '충천연색' 영어를 듣게 된다. 유럽 국가에서 영국 영어와 프랑시스, 독일식 영어가 다르지만, 인도 영어 좀 되면 그나마 그것도 고마울 정도다. 인도를 넘어서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사람들 영어를 들어야 하는 차례가 되면 '대략 난감'이다. 결국 발표자료를 훑어져라 보면서 이해하려고 진땀을 빼야 한다. 더 힘들 때는 나만 빼고 자기들끼리는 말이 통하는지 뭔가 열심히 대화를 하는 경우다. 이럴 때 일본 사람들은 그나마 자기들끼리 속닥거린다. 우리는 그런 회의에 대표를 한사람만 보내지만 일본은 보통 서너 명을 파견한다. 그 중 한 사람 정도가 영어를 하고 나머지는 전문 지식은 있으나 영어에 익숙지 않은 사람들이다. 자기들끼리 낮은 소리로 토론을 하고 이해가 되는지 뭔가 정리를 하는 눈치다. 혼자인 나는 정말 물 없이 찢 계란을 먹은 기분이 된다.

궁하면 통한다고 했던가. 윤 박사가 제시한 자질 중에 공통적인 것이 하나 더 있다. 친화력이다. 언어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 만나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개인이 가

지고 있는 얼굴 표정이나 몸짓, 행동거지에 따라서 비슷한 취향의 사람들이 그룹지어지고 친근감을 나누게 된다. 회의는 보통 하루 이상 하게 마련이다. 자연스럽게 함께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신다든지 하면서 많은 시간을 공유하게 된다. 이럴 때 영어 구사력은 그저 하드웨어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소프트웨어 또는 콘텐츠에 해당되는 것은 사람을 대하는 자신의 태도다. 일단 친근한 느낌을 공유하게 되면 대화가 쉽다. 회의중에 이해가 안 되었던 부분도 질문을 할 수 있고 자료도 요청할 수 있다. 의견의 차이를 좁히는 것도 가능해진다. 이런 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사실 높은 수준의 영어구사능력이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데 꼭 필요한 자질이 아니라는 점에 동의할 것이다.

요즘 대학의 강의를 영어로 하는 것이 추세다. 학생들 졸업 논문도 영어로 쓰도록 권장한다. 그런데 그에 앞서서 모국어로 머릿속 생각을 정리하고 분명하게 설명하는 능력을 갖추도록 훈련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한다. 그리고 좀 더 욕심을 낸다면 나와 다른 문화적·언어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도 쉽게 친해질 수 있도록 오픈 마인드를 갖기를 장려하는 것이다.

이제 한국내에서도 외국인 많이 접할 수 있다. 외국인도 선진국 출신도 있고 우리보다도 소득 수준이 낮은 나라 출신도 있다. 그런 사람들을 동등하게 대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궁극적으로는 내 친구로 만드는 문화적 실력을 갖추도록 젊은이들에게 주문하는 게 어떨까. 



글쓴이는 서울대학교 금속공학과 졸업 후 동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미국 스탠퍼드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